



전북문화관광재단, 사랑의 김장나눔 동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27일 도청 서편 야외주차장 다목적광장에서 진행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28일 재단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100만원 상당의 김장 양념 67kg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취약계층 약 350여 세대에 전달될 분량의 김장 담그기 활동에도 함께했다. 이번 김장 나눔 활동에 이경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10명이 참여해 김장과 포장 활동을 도왔다. /장은성 기자



휴베이스악극, 행복 나눔 김장김치 후원행사

휴베이스악극이 전주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2023 행복 나누는 김장김치 후원행사를 펼쳤다.

28일 휴베이스악극에 따르면 이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자 진행된 김장나눔행사를 통해 (사)나누는사람들 어르신 일거리센터 및 금압노인복지센터 돌봄대상 어르신 320명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귀녀 금압노인복지센터장은 "관내에도 김장김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번 나눔으로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는 휴베이스악극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장김치를 전달받은 김성용(81)씨는 "겨울에 먹을 김장김치가 없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김장김치를 담아 지원해주시니 울겨울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자동차와 학생들, 대학발전기금 전달

전주비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배중수·이성철·문정운(자동차과 2년) 학생이 학과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병훈 총장은 요즘 세대가들 집안보다 개인의 행복을 우선한다는 인식이 높는데 이번 기부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바른 인성교육의 일면적을 보여주는 훈훈한 사례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박경민 교수 프로젝트팀에서 상용차 배기가스저감장치 부품 국산화 개발에 힘쓰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운봉읍서 이웃돕기 백미 기탁 잇따라

남원시 운봉읍행정복지센터에 지난 27일, 운봉읍 준향마을 소대관리회와 운봉이장협의회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백미 10kg 40포와 20kg 4포를 각각 기탁했다.

소씨는 대대로 효행을 실천하는 집안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쌀과 식자재를 제공하는 등 나눔 활동을 매년 실천해 오고 있다.

또한 운봉읍이장협의회에도 지난 시민체육대회 이후 기부 받은 백미 20kg 4포를 관내 독거노인 47정에 나누도록 기부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상생발전 도모 밀거름'

황인홍 무주군수,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28일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챌린지는 최원철 공주시장의 지명으로 성사된 것으로, 황인홍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간의 경쟁이 아닌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밀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황인홍 군수는 이날 백제문화관광벨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금산군에 기부하기로 하고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박법민 금산군수를 지목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으로 부터 시작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할 수 있으며 온라인(고향사랑기부금), 전국농협은행에서 현장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무주군은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별초대행서비스',



'복제문화체험장 자유이용권 등 총 49종의 상품을 준비했으며 관내 소외계층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선물할 수 있는 '포인트 기부하기' 답례 상품도 마련했다.

모아진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한편, 황인홍 무주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무주군의 자매결연 지자체인 서울 중구를 비롯한 대전 서구, 경기 부천시, 경기 의왕시, 부산 기장군 등 5개 지역과 도내 13개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조영휘 하나스톤 대표, 순창군에 고향사랑 기부

순창군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 팔덕면에서 하나스톤 주식회사를 운영 중인 조영휘 대표가 순창군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28일 군에 따르면 하나스톤(주) 조영휘 대표가 순창군청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하나스톤은 기초석 등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7년 11월 순창군 팔덕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시작했으며, 사업을 꾸려나가며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육천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인재 양성에도 이바지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도,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전문가 주인공' 선정

백승용 도 수산정책과 주무관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백승용 주무관(사진 가운데)이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전문가 주인공'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북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11월에는 농업·수산 등 특정 분야에 정통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성 증진에 기여한 직원 대상 '이달의 전문가 주인공'을 선정했다.

이달의 전문가 주인공으로 선정된 백승용 주무관은 지난 60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됐던 고평만·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한 전북도의 숨은 일꾼으로, 그간 고평만·금강하구 지역은 전국 유일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매년 4~10월 모든 어업활동이 불가하였으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11월 7일 금지구역 해제가 시행됐다.

또한, 백 주무관은 군산 어청도 주변 참돔 생산량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전북 참돔 어획량확대 확대 관련 부처



간의 등을 통해 총허용어획량 전국 최다인 1,361톤(전체 3,668톤의 36.8%) 확보에도 기여했으며, 현재 백주무관은 도 해양 여건에 맞는 새우류 포획용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추진중으로 도 어업인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고창 성내면 구동마을 모정 준공

고창군 성내면 구동마을 모정준공식이 28일 현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준공식은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면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 및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무더위 쉼터 및 화합의 장소 준공을 축하했다.

기존 구동마을 모정은 2차선 도로를 건너야 해서 위험하고 불편함이 컸다. 고창군은 주민 숙원해결차원에서 군비 2300만원을 들여 구동마을 회관 옆으로 모정을 신축하게 됐다.

손재홍 구동마을 이장은 "마을 숙원사업인 모정을 준공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결실을 맺고 주민들이 화합하며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넓고 쾌적한 모정이 마련되어 주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전주우림중, 中 예연실험중학교와 교류학습

전주우림중학교(교장 최동성)는 지난 15~19일까지 중국 무석시의 예연실험중학교와 국제교류 학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림중은 K-POP과 중창 등 방과후학교와 동아리 활동에서 익힌 재능을 선보였으며, 예연실험중학교 역시 중국 전통 악기 연주와 뮤지컬 공연으로 예우했다.

앞서 두 학교는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예연실험중학교 시에이자호 교장은 "이번 교류로 인해 두 학교가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동성 교장은 "교류 활동을 통해 배움의 기회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두 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 거주 문미경씨, 진안군에 고향사랑 기부

진안군은 28일 문미경(54)씨가 군수실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미경 씨는 "인근 지역인 전주로 살면서 진안군과 여러모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계기로 고향사랑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진안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씨는 이전에도 진안발전과 장학사업을 위해 진안사랑 장학재단 등을 통해 꾸준히 적지 않은 기부금을 기탁하는 등 낯다른 진안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김제 금산-완도 금일, 쌀 직거래 판매

김제시 금산면(면장 이승근)은 지난 27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매결연 도시인 전남 완도군 금일읍에서 주민들은 지평선 쌀 3톤(20kg, 150포대)의 직거래 판매를 실시했다.

지평선 쌀을 홍보하고 쌀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 이번 직거래 판매는 금산면 자매도시인 완도군 금일읍 주민으로부터 쌀을 주문받아 금산면 이장협의회(회장 배성철)에서 직거래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산농협(조합장 최복순)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완도군 금일읍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매년 쌀을 구매해야하는 상황으로, 작년 10월부터 자매결연 도시인 금산면과 직거래를 실시했는데 김제 지평선 쌀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좋아 올해도 다시 추진하게 됐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 신태인농협, 조합장배 게이트볼 대회

정읍 신태인농협(조합장 황휘중)은 지난 24일 신태인게이트볼장에서 제 9회 신태인농협조합장배 게이트볼 대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역민의 생활체육활동 및 고령인구의 여가선용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읍시 송기순, 오명재 시의원을 비롯한 신태인읍장(정성섭),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유두희), 신태인농협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관내 16개팀 100여명이 참석해, 기량을 펼쳤다.

황휘중 조합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고령농업인과 지역민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며, "다양한 농협의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 우승의 영광은 정노분회(분회장 이광렬)가 거머쥐었다. 준우승은 성광분회(분회장 라중석)가, 상동분회(분회장 고광식),이평분회(분회장 서현영)는 공동3위를 차지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사 내방

▲임 청 전북도 대변인